

뉴스 라운드업

- 美 연준, 만장일치 12~0 으로 25bp 인상 단행 — 정책금리 3.75~4.00%, 점도표는 연내 1 회 추가 인상과 2027 년 동결을 시사
- 인상 발표 후 뉴욕증시 하락 전환 — S&P500 -0.45%, 나스닥 -0.01%, 대형 은행주(JP 모간·씨티·골드만삭스 등) 1.5~4%대 급락
- 달러·단기금리 동반 강세 — 달러인덱스 100.32(+0.71%, 7 월 이후 최고), 미 2 년물 4.736%(+6.5bp, 2024 년 7 월 이후 최고)
- 유가·금 동반 약세 — WTI 102.43 달러(-3.21%), 금 4,263.24 달러(-0.70%), 8 월 소매판매(+1.2%)·수입물가(+0.7%)
서프라이즈로 물가 부담 재확인

연준이 만장일치 매파적 인상을 단행하며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자인했다

미 연방준비제도(Fed)는 9 월 16 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해 3.75~4.00% 범위로 올렸다. 7 월 회의가 9 대 3 으로 동결(3.50~3.75%)되며 매파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12 명 위원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. 새 점도표는 올해 안에 한 차례 추가 인상을, 2027 년에는 동결을 예고했으며, 연말 정책금리 중간값 전망은 4.1%로 6 월 전망(3.8%)에서 크게 상향됐고 2027 년 말 전망도 3.6%에서 4.1%로, 장기 중립금리도 3.1%에서 3.2%로 올라갔다. 워시(Warsh)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직 시의적절하게 2% 목표로 수렴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고, 위원회의 연말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 전망치도 3.6%에서 3.7%로, 근원은 3.3%에서 3.4%로 높아졌다. 같은 날 발표된 8 월 소매판매(+1.2%, 예상 +0.8%)와 근원 소매판매(+1.4%, 2024 년 9 월 이후 최대 증가폭), 수입물가(전월비 +0.7%, 전년비 +7.0%)까지 겹치면서 물가압력이 에너지 요인을 넘어 폭넓게 확인되고 있다는 기존 하우스 뷰(물가채널 다각화 논지)와 궤를 같이한다.

뉴욕증시는 인상 발표 직후 한때 상승폭을 키웠다가 매파적 점도표가 확인되자 낙폭을 넓히며 마감했다. S&P500 은 -0.45%, 나스닥은 -0.01%로 사실상 보합에 그쳤고, 특히 대형 은행주가 두드러지게 약세를 보여 JP 모간 -1.5%, 웰스파코 -3.5%,뱅크 오브아메리카 -3.5%, 씨티그룹 -3.2%, 모간스탠리 -2.2%, 골드만삭스 -4% 등 은행업종 지수가 2.9% 밀렸다. 미 국내금리는 2 년물이 4.736%(+6.5bp)로 2024 년 7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0 년물도 5.020%(+1.4bp)로 올라 단기 구간 중심의 매파적 재평가가가 뚜렷했다. 달러인덱스는 100.32(+0.71%)로 7 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. 다만 유럽 STOXX600 은 +0.46% 상승 마감했는데, 이는 유럽 증시가 연준 결정 발표 이전에 이미 마감했던 만큼 앞선 소매판매 서프라이즈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되며 연준의 매파적 결정 자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. 아시아 증시(코스피 +1.37%, 닛케이 +0.69%, 항셍 +0.19%, CSI300 +0.68%)도 모두 전일 낮 시간대 마감치로, 밤사이 연준 결정과는 무관하며 오늘 개장에서 첫 반응이 확인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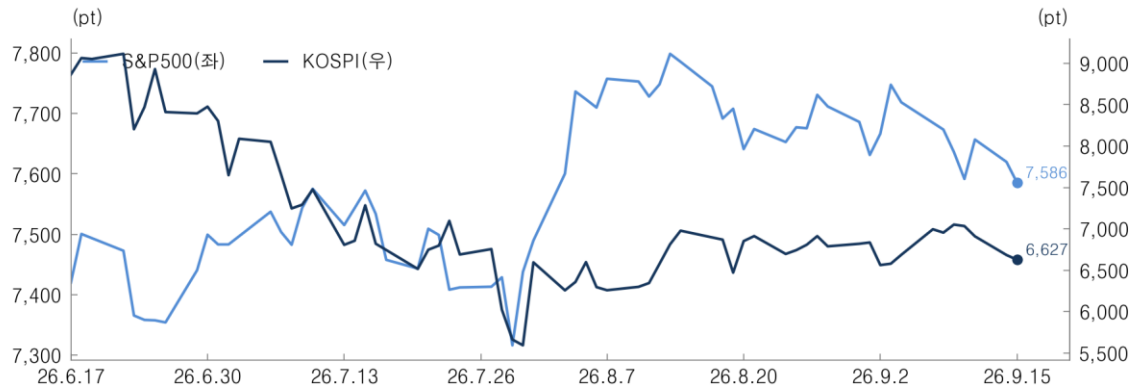
원자재 시장에서는 국제유가(WTI)가 배럴당 102.43 달러로 3.21% 급락해 100 달러선은 지켰지만 낙폭이 컸고, 금은 연준 결정 전 상승분을 반납하며 -0.70%로 마감해 달러 강세와 실질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. 크레딧 시장에서는 미국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276bp(+5.0bp)로 소폭 확대되고 VIX 도 17.72(+3.08%)로 올라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강화됐음을 시사하나 과도한 동요로 보기는 이르다. 한편 터키 자산운용사 테라 포트포이(Tera Portfoy)가 머니마켓 리라펀드 환매대금 지급에 디폴트를 낸 사실이 확인돼 일부 신흥국 크레딧 스트레스가 개별 사례로도 표출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. 전반적으로 이번 FOMC 는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공급충격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재규정하며 추가 긴축 경로를 강화했고, 시장은 이를 은행주·달러·단기금리 중심으로 소화하는 모습이다.

글로벌 주요 자산

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· 직전 확정 종가 대비 · Trading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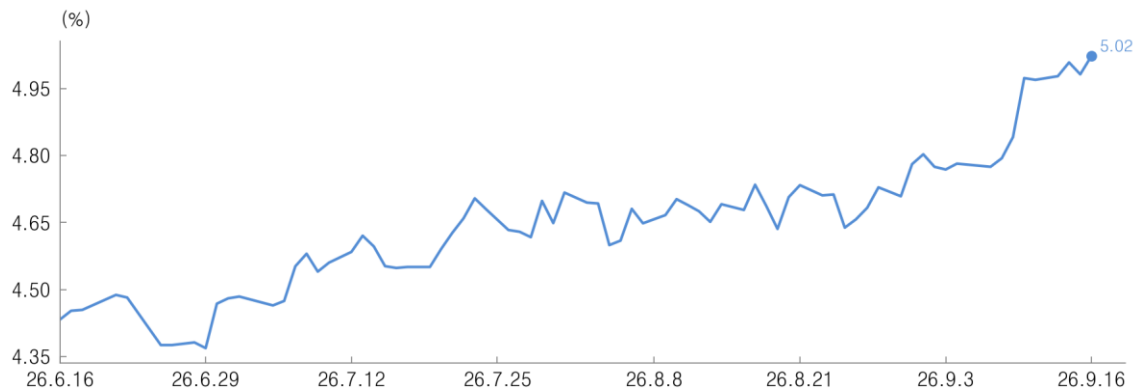
구분	자산	가격	전일 대비	기준
주식	S&P 500	7,551.81	-0.45%	9/16 종가
	나스닥	25,978.41	-0.01%	9/16 종가
	STOXX 600	637.10	+0.46%	9/16 종가
	닛케이 225	63,922.78	+0.69%	9/16 종가
	CSI 300	4,480.27	+0.68%	9/16 종가
	KOSPI	6,717.97	+1.37%	9/16 종가
	항셱	24,713.78	+0.19%	9/16 종가
환율	달러인덱스(DXY)	100.32	+0.71%	9/16 종가
	달러/엔	156.21	-0.02%	9/17 종가
	유로/달러	1.15	-0.05%	9/17 종가
	달러/원	1,376.27	+0.99%	9/16 종가
	달러/위안	6.71	-0.08%	9/16 종가
금리	미국 10 년	5.020%	+1.4bp	9/16 종가
	미국 2 년	4.736%	+6.5bp	9/16 종가
	일본 10 년	2.995%	-4.6bp	9/16 종가
	독일 10 년	3.527%	-1.4bp	9/16 종가
	한국 10 년	4.553%	-3.5bp	9/16 종가
크레딧	미국 HY 스프레드	276bp	+5.0bp	9/15 종가
원자재	WTI	102.43	-3.21%	9/16 종가
	금	4,263.24	-0.70%	9/16 종가
	구리	6.51	+1.02%	9/16 종가
변동성	VIX	17.72	+3.08%	9/16 종가

S&P500 vs KOSPI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

권역	요약
글로벌 · 교차자산 뉴스 12 건 HIGH	• 연준, 2023 년 이후 첫 금리 인상,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↳ 기준금리 25bp(0.25%) 인상, 인플레이션 조정 가속화 ↳ 올해 추가 인상 1~2 회 가능성(정책위원 18 명 중 12 명 1 회, 4 명 2 회 전망) ↳ 2026 년 말 PCE 인플레이션 3.7% 예상(6 월 3.6%), 기준금리 중위 전망 4.1%(6 월 3.8%) • 연준의 매파적 기조 전환에 글로벌 주식 낙폭 확대, 미국 10 년물 채권수익률 5% 돌파 ↳ 미국 주식시장 하락 전환, 유럽 증시도 낙폭 확대 ↳ 10 년물 미국채(UST) 수익률 5% 돌파, 역사적 고점 근처 도달 ↳ 달러화 강세, 금 약세, 유가는 배럴당 \$100 이상 유지 • 캐나다 부동산 부진 가중, 소비자 지출 약세 신호 확대 ↳ 8 월 주택착공 229,046 호로 시장 예상(240,000 호) 하회 ↳ 7 월 건축허가 -17.3%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 약세 신호 ↳ 저가 소매체인 달러라마 매출 전망 상향, 소비자의 저가 상품 선호 심화 • 캐나다중앙은행, 인플레이션 지속 시 금리 인상 재개 검토 ↳ 기준금리 2.25% 현 수준 유지 결정, 단기 인플레이션 위험 존재로 평가 ↳ Macklem 총재 '물가 고착 시 여러 차례 금리 인상 추진'이라고 발언 • 호주달러·캐나다달러 약세로 선진국 통화 낙폭 확대 ↳ 호주달러 0.7115 대 진입으로 -0.23% 낙폭(연준 인상 직후) ↳ 캐나다달러 C\$1.3936 으로 약세, 캐나다 10 년물 채권수익률 3.919%
미국 뉴스 140 건 HIGH	• 연준 기준금리 0.25% 인상(3.75~4.00%), 3 년 만의 긴축 신호 ↳ Warsh 의장 주도의 만장일치 결정, 인플레이션 억제 명시 ↳ 2026 년 말까지 추가 인상 1 회 예상(정책위원 16/18), 2027 년은 현 수준 유지, 2028 년부터 인하 전망 ↳ 개인소비지출물가(PCE) 전망 0.1%포인트 상향(3.7%, 6 월 3.6%), 근원 PCE 도 3.4%(6 월 3.3%)로 상향, 2 년물 국채 수익률 4.744%로 2024 년 7 월 이후 최고 • 금융주 광범위 하락,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 수요 위축 우려 ↳ JPMorgan -1.5%, Wells Fargo -3.5%, Bank of America -3.5%, Citigroup -3.2%, Goldman Sachs -4%, Morgan Stanley -2.2% ↳ S&P 500 은행주 지수 -2.9%, 금융 부문 -2.1% • 주식시장 약세 마감, S&P 500 -0.44%, Dow -1.21% ↳ Nasdaq 은 거의 보합(-0.01%), 기술주 상대적 강세 ↳ 에너지 부문이 가장 약한 모습 • 달러화 7 월 이후 최고치 기록, 금리 인상과 기축통화 선호 강화 ↳ 미국 유가 3% 이상 하락, 비트코인 거의 보합 • 8 월 소매 판매 +1.2% 기록, 경제 기조 견조 ↳ 7 월 기업 재고 +0.8%, 경기 탄력성 입증

권역	요약
유럽 뉴스 27 건 HIGH	• 유로존 국채 수익률 17년 최고 수준 근처에 고착, 에너지·유럽중앙은행 인상 베팅·연준 정책 영향 ↳ 유가 변동에 따른 일시 조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17년 최고치 근처 수준 유지 ↳ 트레이더들의 유럽중앙은행 추가 인상 베팅 확대, 일부 파생상품에선 유로존 정책금리(예치금리) 3.5% 초과 수준으로 가격 책정 ↳ 프랑스 국채 스프레드는 14년 이상 최고치 근처, 연준 정책회의(대부분 0.25% 인상 기대) 결정 대기 중 • 영국 2년 국채(길트) 수익률 7주 최대 낙폭, 파운드/달러(GBP/USD)도 6주 최저 기록 ↳ 2년 국채 수익률 4.792% 저점 터치로 전일 대비 10bp 이상 낙폭(독일 2년물은 1.5bp 만 하락, 엇갈린 움직임) ↳ 파운드/달러(GBP/USD)는 1.3458 수준으로 6주 최저 진입, 200 일선(1.3455) 근처 위치 ↳ 유가 하락이 주요 악재로 작용 • 영국중앙은행, 에너지 리스크 속 매파적 피벗 신호·분할 표결 시나리오 부상 ↳ Greene 등 매파 위원들, 2차 인플레이션 파급 위험 강조 ↳ Taylor 등 비둘기파는 정책 이미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주장 ↳ 7월 6:3 표결 반복 예상이 지배적이나 5:4 분할 가능성도 시장에서 논의 • 유럽중앙은행 이사회 위원 Pereira, 인플레이션 아직 2022년처럼 광범위 확산되지 않는다 평가 ↳ 포르투갈 중앙은행장 겸 유럽중앙은행 이사회 위원, 인플레이션 확산 속도 2022년보다 느리다고 판단하나 광범위 확산 가능성 배제 불가 ↳ 가스 가격 상승, 특히 가을·겨울철 수요 추이를 향후 수개월간 긴밀히 모니터링 중 • 스웨덴 중도좌파 야당 세력 총선 승리
남미 기타 뉴스 9 건 HIGH	• 칠레 중앙은행, 금리 4.5% 현상유지를 불확실성 속 '명백히 지배적' 선택지로 평가 ↳ 지난주 금리 결정 회의에서 전원일치로 기준금리 4.5% 유지, 거시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평상시보다 높은 점을 반영 ↳ 기준금리는 2025년 12월 이후 4.5% 고정 상태, 인플레이션은 예상 경로를 따르고 있으며 2분기 중 3% 목표 수렴 예상 • 콜롬비아 8월 연간 인플레이션 6.24%로 2년 만에 최고, 중앙은행 추가 조치 필요 시사 ↳ 8월 수치가 시장 전망을 상회했으며, 7월의 소폭 완화 신호 이후 8월에 반등 ↳ 중앙은행 이사 발언: 현 금리 수준의 적절성 재검토 및 추가 조치 필수 강조, 3%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더 강한 대응 필요 ↳ 시장 전망: 2026~2027년에도 3%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• 콜롬비아 중앙은행, 페소 절상 추세를 통제할 정책 수단 없다 — 이사 발언 • 아르헨티나 2분기 GDP 성장 1.6% 예상, 전년 6.5%에서 급속 둔화 ↳ 로이터 설문조사(16개 기관) 중앙값 1.6%, 범위 0.4% ~ 3.1% — 전망이 매우 분산된 상태 ↳ 분석가 평가: 부분적이고 불균등한 회복 중, 농업·광업·에너지 부문 중심 성장으로 제조업·상업은 부진

권역	요약
	• 베네수엘라 마차도 야당 지도자,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귀국 일정 미정 ↳ 작년 말 노벨평화상 수상 후 해외에서 활동 중, 귀국 의사는 있으나 정확한 시기 설정 안 됨(야당 소식통) ↳ 트럼프 정부: '현 단계에서 민주선거 추진은 시기상조'라며 소극적 입장 유지 ↳ 정치적 영향: 8월 지지도 53%, 7월 72%에서 하락
EM 기타 뉴스 28 건 HIGH	• 후티 운동 홍해 전략 요충지 장악, 메카 근처 드론 공격 시도로 사우디 위협 고조 ↳ 후티의 홍해 해안 진출로 바브엘만덴해협 인근 지형 장악 및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우회로 확보 신호 ↳ 메카 인근에 드론 침투 시도(사우디 당국 요격 주장, 후티 측 부인), 이슬람 성지 직접 위협으로 평가돼 '금지선(레드라인)' 돌파로 해석 ↳ 사우디의 예멘 내 동맹 세력 붕괴 및 미국 보호 약속의 실질적 효과성에 의문 제기, 이란의 지역 영향력 확대 신호 • 터키 테라 포트폴리오, 머니마켓펀드(MMF)·주식펀드 환매 불이행 공시 ↳ 머니마켓펀드(MMF, 리라)·주식펀드 환매 중단, 신용사태 신호로 해석 ↳ 그룹 회장 Emre Tezmen 은 '계획적이고 조직화된 투기적 공격'이라 진단하며 유동성 문제는 일시적이라고 설명 ↳ 중개사와의 조정 및 펀드 유동성 관리 진행 중 • 사우디·UAE·오만, 연준 25bp 인상 추종해 기준금리 인상 ↳ 사우디: 기준금리(레포금리) 4.5%, 역레포금리 4.0%로 결정(각각 25bp 인상) ↳ UAE: 야간 예치금리를 3.65%에서 3.9%로 인상, 오만도 4.5%로 인상 ↳ 중동 대부분 국가의 통화가 달러에 연동되어 연준 정책 추종이 통례 • 우크라이나, 2027년 국방지출 \$1,100억 기록 수준 제안, 예산적자 GDP의 15% ↳ 2026년 전쟁 일일 비용이 \$1.9억에 도달(2022년 \$1.16억 대비 대폭 증가), 연간 재정 부담 가중 ↳ 러시아 동결자산이 주요 재원 충당 방안으로 거론 • 폴란드, 8월 근원인플레이션 전년동월대비 3.3% 기록, 예상 상회·9월 상한 돌파 우려 ↳ 8월 식료·에너지 제외 물가 전년동월대비 3.3%(로이터 설문 예상 3.2% 상회) ↳ 중앙은행 Wnorowski: 9월 CPI가 정책 목표 상한(3.5%) 초과할 가능성 제시 ↳ 올해 기준금리 3.75% 동결 유지 가능성 높으나, 물가 상승세 지속 시 내년 인상 가능성 배제 불가
중국 뉴스 1 건	• 광동성 전력 개혁으로 가스 수요 성장 둔화 전망 ↳ 2025년 7월 이전 체제 — 가스화력 발전소에 발전 시간 보장, 표준 요금 확정, 연료비 급등 시 추가 보조금 지급 ↳ 개혁 내용: 경제성 중심의 배분제(경쟁 입찰) 도입, 발전사가 실제 연료비 회수를 위해 시장에서 경합 ↳ 전망: 가스화력발전 가동 시간 단축 및 천연가스 소비 성장을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드 맥켄지 분석
인도 뉴스 4 건	• 인도 국립증권거래소(NSE) IPO, 674.6억 루피 규모 앵커 배치 완료 ↳ 배치 가격 주당 1,785 루피(IPO 공시 밴드 상단)

권역	요약
	↳ 생명보험공사(LIC)를 필두로 노르웨이 노르게스은행, 아부다비투자청(ADIA), 피델리티 등 100 개 이상의 국내외 기관투자자 참여 • 인도 루피, 어제 달러당 95.9550 으로 약세 — 7 월 27 일 이후 최저 ↳ 현지 기업의 달러 수요 강화, 연준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 ↳ 국제유가 배럴당 \$100 이상 유지에 따른 수입비 부담 증가 ↳ 인도중앙은행(RBI)의 개입으로 추가 낙폭 억제 • 인도 정부, 식물성유 수입세 인하 추진 — 물가 안정 목표
브라질 뉴스 4 건	• 브라질 9 월 물가지수(IGP-10) +1.47%로 전월 대비 급반등 ↳ 8 월 -0.51%에서 반전, 로이터 설문 예상(+1.25%)을 웃돌음 • 브라질 7 월 경제활동 -0.2%로 2 개월 연속 수축 ↳ 예상 -0.1%보다 악화, 6 월 -0.9%에 이어 계속된 부진 ↳ 높은 차입비용이 경제 둔화의 주요 요인 ↳ 중앙은행의 지난 4 개월 연속 금리 0.25% 인하 진행 • 라틴아메리카 자산 엇갈린 움직임 — 통화 강세, 주식 약세 ↳ 통화지수 +0.2%, 주식지수 -0.3%, 유가 약세가 주식 부진을 견인 ↳ 연준 금리 인상(0.25%) 전망과 브라질 중앙은행 인하(0.25%) 전망이 대비되며 기축통화 선호와 신흥시장 자산 간 선호도 상이
프론티어 뉴스 2 건	• 바레인 중앙은행, 야간예치금리 4.50%로 인상(25bp) ↳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추종 ↳ 9 월 17 일부터 적용

출처: Reuters,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